

태국팀 5월 보고서

By. Raonatti 13 thailand

일정표 소개

By. Raonatti 13 thailand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Day off	2 Day off
3 Sankhampaeng Y staff들과의 활동	4 치앙라이 활동 보고서 준비	5 치앙라이 활동 보고서 준비	6 넬서리 센터 활동	7 넬서리 센터 활동	8 Sankhampaeng Y staff들과의 활동	9 Sankhampaeng Y staff들과의 중간평가
10 Day off	11 마을 활동 준비	12 마을 활동 준비	13 마을 활동 준비	14 'Bantannua' 마을로 출발	15 홈스테이	16 홈스테이
17 홈스테이	18 홈스테이	19 홈스테이	20 홈스테이	21 홈스테이	22 Sankhampaeng 으로!	23 중간평가& Sankhampaeng Y staff들과의 활동 회의
24 Day off	25 비자 트립 (말레이시아)	26 비자 트립 (말레이시아)	27 비자 트립 (말레이시아)	28 비자 트립 (말레이시아)	29 비자 트립 (말레이시아)	30 Sankhampaeng Y staff들과의 활동 회의
31 'Bantannua' 마을로 출발!						

활동 소개

By. Raonatti 13 thailand

넬서리 센터

태국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식물의 종자 및 모종 등을 연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박5일 캠프 형식의 일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에 의하여 2박2일 일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넬서리 센터에서 라온아띠가 한 활동들은 연구실 견학, 잡초 뽑기, 흙 담기, 나뭇잎 찌르기, 종자심기, 열매 수확 등의 일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Day-1





Day-2



맨처음 널서리 센터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병원 혹은 무엇을
돌보는 곳 인 줄 알았어. 하지만 가서 보니까 그런 곳과는 거리
가 멀더라고.. 몸은 힘들긴 했지만, 왜지 마을 가면 써 먹을수
있는 스킬을 많이 배울수 있었던 곳 이었어.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내가 좋아하는 썸땀을 만드는 법을 배울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널서리센터 짱!**



가진 정보가 거의 없이 간 널서리센터라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 했다는 거? 거북이 집 이후로 오랜만에 육체노동을 한 활동
이라 진짜 뭔가 한 것 같다고 느껴진 느낌 엄청 덩고 힘들긴 했지만
만 다들 입을 닫고 단순노동에 집중했던 활동!



하루하루 피땀 섞인 농부의 하루란...



Malaysia Visa Trip

태국팀은 한국에서 출발할 때 비자를 받지 못해 3개월 시한부를 선고 받고.. 출발!
태국에서 남은 2달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꼭꼭!
그래서 태국팀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태국 대사관으로 향하게 되는데...

어허 비자를 받아야 불법체류 안 하거늘!



세가지를 느끼고 온것 같다.

첫 째는 걸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빈부
격차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말레이시아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둘 째는 물가..! 태국에서 국수 10그릇 먹을 돈이 말레이시아에서
는 10그릇 먹는돈 이라는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셋 째는 쿠알라YMCA스텝 분들의 따듯함! (특히 조세핀!)



비자를 꼭 받아오라는 스텝들의 당부...하지만 우리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돌아왔다는 사실... 라온의 마음으로 갔다 왔다는 거



모든 것이 생소한 나라. 한국보다 비싼 환율도, 야자수 숲에 어울리지
않게 우후죽순 솟아난 빌딩들도. 화려한 밤거리도.

라온아띠의 타이틀을 내리놓은 팀원들의 모습을 새롭게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Tannua village

라운아띠 13기 태국팀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살게 될 "판느아 마을"

한국인을 접하는 게 처음이라는 마을.

이른 아침부터 생활이 시작되는 마을.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오토바이를 혼자 모는 마을

사투리가 심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쏠쏠한 마을.

우리가 사는 마을 "너란 반판느아"

썬퍼네

썬퍼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썬퍼 이렇게 4가족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앞 집에서 국수집을 하시어서 매일 아침 국수를 먹고 땀을 합니다. 그리고 담장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만남의 광장이 됩니다.

썸피터네

동생 이름: 낑, 나이: 15세, 직업: 중학생

홈스테이 4가족중 유일하게 가게를 하시는 집
의 딸로써 aka “국수집 딸래미”

성격 또한 너무 착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더라도 다 받아주는 약강

보살형 성격의 소유자.

남자친구는 아직 없으며
덕깨우(지원)의 홈스테이 동생인 “밍” 과는
절친한 친구 사이

꼬손이네



꼬손이네

나이(??), 이름: 피어, 직업: 나무꾼

특이사항: 평소 과묵하시고, 말이 별로 없으심. TV를 자주 보시고, 집 안에서 흡연을 즐기심.

이제까지 두 마디의 대화를 나눴음. 그 중 첫 번째가
(뉴스를 보시면서) “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니??”

나이(??), 이름: 메에, 직업: 선녀

특이사항: 낮을 많이 가리시지만 보이지 않게 잘 챙겨주심. 낮을 많이 가려서 평소
옆집 할머니나 동생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누나: 나이(27), 이름: 꿈, 직업: 주부

특이사항: 27세의 유부녀. 두 아이의 엄마. 나이에 비해 행실이 성실하고, 성숙해 보임.
셀카를 무척 좋아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같이 셀카를 찍느라 식사에 집중하지 않음.

꼬손이네

동생 이름: 마이, 나이: 14세, 직업: 학생

특이사항: 한창 중2병에 걸려 있어 그 무엇보다 자신의 근육을 제일 좋아하는 듯 보임.

다음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NET'을 좋아한다. 기타연주를 좋아해 나와 취미가 겹쳐 매일 밤 같이 기타를 친다.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 한국 노래를 벌써 하나 배웠다.

한국어 실력은 쓰기: 중하 - 자신의 이름, 여친, 내 이름 쓰기 가능.

읽기: 중 - 기억 니름을 배워서 하나하나 따로 읽으며 조합 가능.

말하기: 하 - 태국사람 특유의 발음이 섞여 현지인으로서 글자 하나하나 분량이 힘들.

덕개우네

덕개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이렇게 7식구입니다.
그리고 옆집에는 친척 할머니가 사십니다.
이 마을은 북부지방인데다 라오스 사람들도 있어서 사투리가 좀 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태국어로도 소통하는 게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와 동생이 간단한 영어는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수월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답니다.

덕깨우네

가족소개

할아버지는 전직 의사이신 것으로 추정. 현재는 집에 계시고 태국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TV에 한국이야기나 무에타이 이야기가 나오면 저를 부르셔서 같이 TV를 보곤 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같이 식구들을 위해 아침, 저녁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빠는 목수일을 하셔서 아침, 저녁으로만 집에 들러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잠은 작업장에서 주무십니다.

엄마는 봉제일을 하셔서 너무 바쁘시답니다.

언니(사실 나랑 동갑)는 지금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 다녀서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옵니다.

아침에 등교는 동생이 태워주는 오토바이로 하고 집은 학교에서 오토바이로 약 2~3분 거리에 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친척할머니가 매일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십니다.



덕깨우네

동생 Ming은 15살, 중3이고
Tannua 중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선 엄청 진지하고
시크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하니부터 열까지
저를 챙겨주는 귀여운 동생입니다.

학교에서 분낙(주현)과 서로를 놀리기에
바쁜 환상의 콤비입니다.

동생은 과자를 좋아하고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 전에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듣습니다.

저에게 불교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분남네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분남, 할머니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분악네



아버지 : 춘개우(저산 하는것)와 술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어머니와 붙어 다니십니다 ♥ 밖에서는 친근하시고, 집안에서는 자상하신 50대 중반이라는 나이와는 다르게 애교가 많은 분악네 아버지!



어머니 : 항상 인자한 미소로 대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호기심이 정말 많습니다. 집 마당에서 아령을 들고 문동을 하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자세히 보시고 계시다가, 문동이 끝나면 와서 하도 되니고 물어보시고 그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저 처럼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시어서 학교 끝나고 저녁 먹을 때면 드라마를 2개정도 같이 봐주시는 분악네 어머니!



할머니 : 한국으로 치면 발음이 완전 사투리라서, 솔직히 잘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궁금한 것은 못 참시는 성격! 문동 할 때 아령을 들어보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 할머니. 가끔 동생과 장난으로 몸싸움도 격하게 하시는 분악네 할머니!

빈낙네

동생 이름: 빈, 나이: 15세, 직업: 중학생

영어가 거의 안되긴 하지만
어떻게든 바디랭귀지를 써서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엄청난 바디랭귀지의 소유자.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태국인 보다는 흑인에
가깝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웃는 게 매력적인 친구.
학교에서는 너스레 좋은 성격과, 뛰어난 작업
실력 덕분에 여러 선생님에게 불려 다니면서 작
업을 하는 것이 하루의 주요 일과. 학교가 끝난
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축구! 축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력 또한 **짱짱맨!**



반딧노야 학교 소개

Bantannua 학교는 Tannua 마을에 위치한 전교생 329명, 선생님 20명인 초등 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는 식당, 도서관 그리고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밴드부 실이 있고 하룻길을 즐겁게 해주는 매점도 있습니다. 저희 태국팀은 학교 앞에서 파는 간식을 좋아합니다. 정말로요. 단골입니다.

(서비스까지 주실 정도로 단골이에요 ^^)

도서관



학교 앞
매점



학교 소개

학교
식당



밴드부식
들





A photograph of two young men sitting on a dirt ridge. The man on the left is wearing a grey Nike t-shirt, dark pants, and a white bag with a 'Low Carbon Lifestyle' logo. He has his right arm raised.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red and white striped t-shirt, green pants, and pink sandals. They are both smiling. The background shows a landscape of green hills and a blue sky with clouds.

태국팀의 감동적인 일상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첫 주말,
동생 Ming과 전교회장친구
Klear와 같이 마을의 명소인
'파싱디어우'에 놀러 갔다.

'파싱디어우'는 마을 뒷산에 있는
절벽이다. 절벽과 마주한 정자
에 앉아서 쉬 수도 있고 절벽까지
걸어가볼 수 있는 곳이다.



한국에서 가져간 한국 팩으로
동생과 처음 팩을 했다.

동생이 내가 한국에서 가져간
로션,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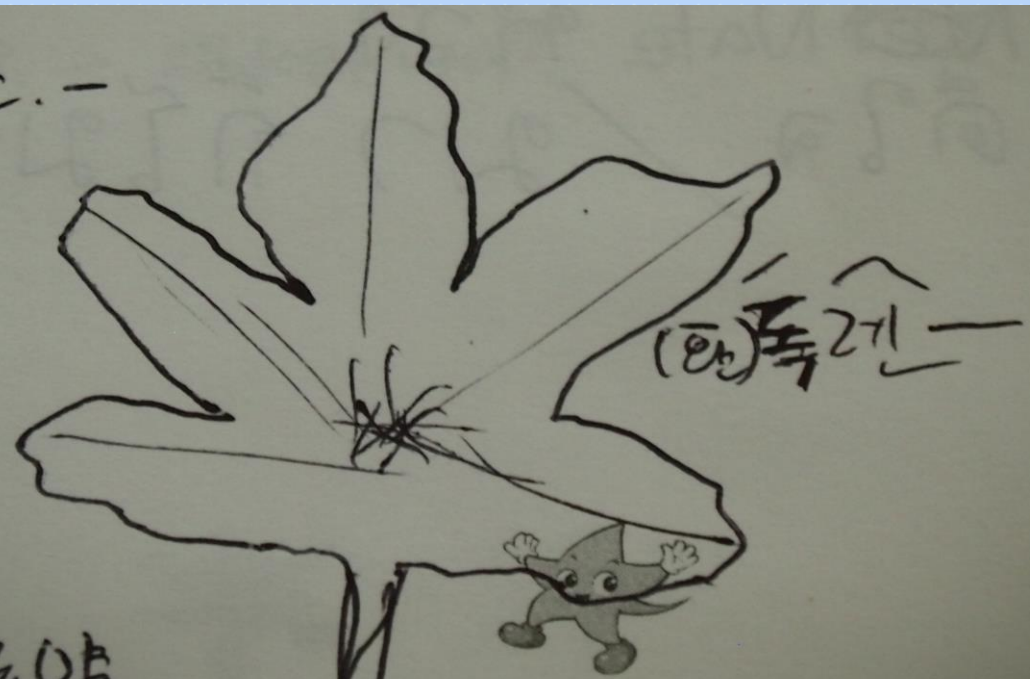
동생은 가끔 혼자서도 팩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 곳은 Ming과 덕개우의 집~ 홈스테이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Ming과 덕개우가 준비한 수제야끼를 먹은 날! 다들 배부르게 맛있게 즐겁게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손가락 -



(행)복개 -

치료를
다음을 내이면 낫는다!!

KB스타 경제·금융교실

0000년 00월 00일 꼬손이의 일기.

자전거 타다가 심하게 다쳤다. 피가 많이 났다. 무서웠다.
엄마 아빠가 걱정했다. 약이라면서 약초를 꺾어왔다. 더 무서워졌다.
플즈를 바르더니 내일이면 낫는다고 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개인 소장

By. Raonatti 13 thailand

말한다. 꼬손이는. 개인소감을.



마을생활 3주차. 나에게도 마을의 냄새가 제법 묻었다. 마을에 차음 들어와 매일 모기에게 당하던 도시촌놈 한국인일 때와 달리 이젠 마을의 냄새가 제법 묻어 모기를 잊고 살 때가 많다.

가족놀이.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P'pare를 엄마라 부르는 것도 매우 불편했다. 진짜 나의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 3년 내내 삼시 세끼를 챙겨주시던 식당 엄마에게도 단 한 번도 '엄마'라는 호칭을 써본 적이 없다. 거짓이며 낮간지럽고, 가식적이라고 느꼈다. 이제 그 뼈뺏았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대학교 수업에서 머리 싸매고 배웠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난 이곳 **반딧노아**에 와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다.

언어의 장벽이 크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 누가 그랬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라고. 난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을 땐 웃음으로 감사하고, 웃음으로 사과하고, 웃음으로 함께 어울린다. 사람들이 왜 여행을 다니고, 산을 타고, 연애를 하는지 마을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덕깨우(지원) 개인소감

4월의 길었던 활동들과는 달리 5월은 짧디 짧은 활동들로 한 달을 채웠던 것 같다. 치앙라이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작된 3단 보고서의 릴레이. 자연에 둘러싸여 보낸 널서리센터 일정. 기대하고 걱정했던 마을 살이. 4명 이서만 떠난 말레이시아 비자 트립. 31일 이라는 시간 동안 크게 한 활동은 이렇게 4가지였는데 다른 시간들은 뭘 하고 지냈는지 참 생각도 잘 안 날 정도로 지나왔다. 이제 정말 5개월의 반을 잘 지나왔다는 마음 때문일까? 안도감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다. 5월 중순부터는 정말 산캠핑이 어색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짐을 싸야 하는 활동들이었다. 계속 싸고 풀고 다시 싸는 과정이 귀찮았지만 1달 후에 다시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나간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한 달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냐'였다. 처음 한국에서 출발할 때 '모든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는데 과연 그 다짐은 얼마나 지켰으면 앞으로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돌이켜보니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상대가 먼저 해주지 않아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어영부영 지나와 버린 날들이 가끔 떠오른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는 더욱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했다. 아이 한 명 한 명, 가족들 말 한마디에도 잘 반응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웃으려고 노력한다. 이곳 마을에서는 매일매일 내 이름을 불러주며 달려와 주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가는데 참 즐겁다. 무척 덥고 오랜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노는 모습이 참 좋다. 다음 달은 한 달 내내 마을에서 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 지 기대된다. 아이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분락(주현) 개인소감

정신 없던 한 달이었다. 정말로.. 그리고 이번 달은 나 자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었다.
3개의 보고서, 중간평가준비, 말레이시아 비자 트립, 홈스테이라을 방문 등등.. 좋은 것도 분명히 많았지만, 나에게 있어서

5월은 좀더 힘든 게 많은 날이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두통,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흘러내리는 땀방울, 상여만 가는 보고서 등등. 솔직히 말하자면 난 소진상태였다. 그냥 좀 누워서 몇 일만 휴식을 취하면 과반쯤은 낫을 것 같은데..

오라는 곳, 해야 하는 것은 왜? 이리도 많은지.. 그렇게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바로 만느아 라는 앞으로 우리가 홈스테이를 한달 반정도 하게 될 마을

여기도 물론 YMCA처럼 정신 없이 바쁘긴 하지만 그 곳과는 다른 점이 한가지 있다. 바로 태국동생이 있다는 것. 학교라는 공식일정이 끝나치면 4시쯤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자유 시간이다. 즉 리얼 버라이어티. 동생이랑, 그리고 라온아띠 멤버들이랑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맛집도 많이 가보고, 친구의 집도 습격해보고. YMCA에 있었더라면 못할? 일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을에서는 정말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다. 덕분에 여기 사람들이랑 더 많이 친해진 것 같고. 비록 1주일 동안 살다와서 맛만 보고 왔지만, 이것을 통해 소진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가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에서 살게 될 텐데, 그생활이 너무 기대된다. 힘내야지!!